

하도급대금 연동제 실무 가이드 ver. 1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10월 4일 이후 계약부터 연동에 관한 내용 포함해야

- 12월 31일까지 제도기간,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답변(FAQ) 배포

※ 연휴 엠바고 주의 : 10월 3일(화요일) 낮 12시부터 보도가능 ※

10월 4일 이후로 체결·갱신되는 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수급사업자 간 연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년 12월 31일까지는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와 함께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제도기간이므로, 새로운 계약체결을 앞둔 기업은 표준연동계약서, 가이드북과 FAQ를 참고하여 적시에 연동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된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제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은 소액거래 또는 단기거래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협의를 거쳐 결정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연동 산식,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 등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미연동 사유 등을 적시한 미연동계약을 체결하여 추후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9월 표준연동계약서와 표준연동계약서 작성 가이드북을 제정·배포한 것에 이어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이 자주 묻는 200여 개 질의에 관한 답변을 수록한 FAQ를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공표된 바와 같이 연동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하도급법상 벌점 및 과태료 감경,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연동 우수기업들에 대한 가점 부여, 연동모범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지원사업에의 가점 부여 및 산업은행의 금리감면 등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된 특전(인센티브)이 제공되므로, 연동의무가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동의무가 없는 기업도 연동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개별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10월 중, '하도급대금 연동 지원본부'를 지정하여 원가 분석 지원 및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대·중소하도급업체의 고충상담 및 분쟁해결 등 연동제 참여기업들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은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공정위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원·수급사업자간 성실한 협의를 통한 연동계약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제도기간을 운영하여 이 기간 중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 시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수·위탁거래의 경우에도 연동제가 적용되므로 연동제 적용대상 여부, 적용방법 등을 꼼꼼히 따져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 확인절차



[참조 1] 당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등을 위탁하는 거래인가요?

- 위탁거래의 종류

구분	설 명
제조위탁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란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함· “제조위탁”이란 제조, 판매, 수리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 금형, 사형, 포장용기, 라벨, 건설자재 등의 제조위탁을 말함</div>
건설위탁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 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하는 공사 등을 말함· “공사위탁”이란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의 위탁을 말함</div>
가공위탁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공”이란 재료를 쓰거나 또는 물건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을 말함· “가공위탁”이란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 커피 가공업, 차류가공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날염 가공업, 석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제재 및 목재 가공업,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등의 위탁을 말함</div>
수리위탁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리”란 컴퓨터 및 주변장치, 통신장비, 가전제품, 가정용품, 가구 및 가정용 비품,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 경기용품, 악기 및 취미용품, 기타 개인용품을 전문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것을 말함· “수리위탁”이란 고객사의 주문을 받거나, 당사가 사용하는 물품의 수리 위탁을 말함</div>
용역위탁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의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함· “용역위탁”이란 지식성과물의 작성 또는 의무의 공급을 위탁을 말함</div>
기술개발 위탁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개발”이란 용역 중 기술자료의 산출과 관련된 개발행위를 말함.· “기술개발 위탁”이란 기술자료의 산출과 관련된 개발행위를 위탁하는 것을 말함</div>

[참조 2] 거래상대방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해당하나요? - ‘2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대자동차, 삼성, 에스케이, 엘지, 포스코, 롯데, 한화, 지에스, HD현대, 농협, 신세계, 케이티, 씨제이, 한진, 카카오, 엘에스, 두산, DL, 에이치엠엠, 중흥건설, 현대백화점, 부영, 네이버, 미래에셋, 에스-오일, 금호아시아나, 하림, 영풍, 에이치디씨, SM, 효성, 셀트리온, 호반건설, 케이티앤지, 케이씨씨, 장금상선, 대우조선해양, 오씨아이, 코오롱, 태영, 넷마블, 세아, 넥슨, 엘엑스, 쿠팡, 이랜드, 한국타이어, DB

[참조 3] 거래상대방의 직전 3개 사업년도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의 기업인가요?

또는 기타 중소기업/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나요?

- 평균매출액이 3천억 미만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인지 여부 확인 방법

- ➡ 매출액 정보 : DART공시, Cretop 등
 - ➡ 중견기업의 기준 : 중견기업 범위 | 중견기업 현황 | 중견기업정보마당 [mme.or.kr]
 - ➡ 중소기업의 기준 : 중소기업범위기준 - 법령정보 - 알림소식 -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참조 4] 원재료의 개념

➡ ‘원재료’란?

: 수탁기업(매입처)이 물품 등의 제조, 건설, 가공, 수리, 용역, 기술개발 등에 사용할 원재료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① 천연재료

[예] 금, 철, 구리, 알루미늄, 고무, 연, 아연, 주석, 니켈, 석탄, 원유, 원목 등

② 화합물

[예]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 (PVC) 등

③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예] 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섬유, 합성수지 등

④ 수탁기업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예] 자동차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고무타이어, 전기센서 및 램프, 시스템반도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모듈, 반제품 등

? 인건비도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지? X

인건비는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하도급대금의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성되며, 원재료는 재료비, 인건비는 노무비에 각 해당됩니다.

➡ ‘주요 원재료’의 개념

: 원재료 중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주요 원재료’라고 합니다.

➡ ‘주요 원재료’를 확인하는 방법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원재료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에 한정되므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원재료 정보(예시: 원재료 내역, VAT 포함 기준 구매 금액,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관련 증빙 등)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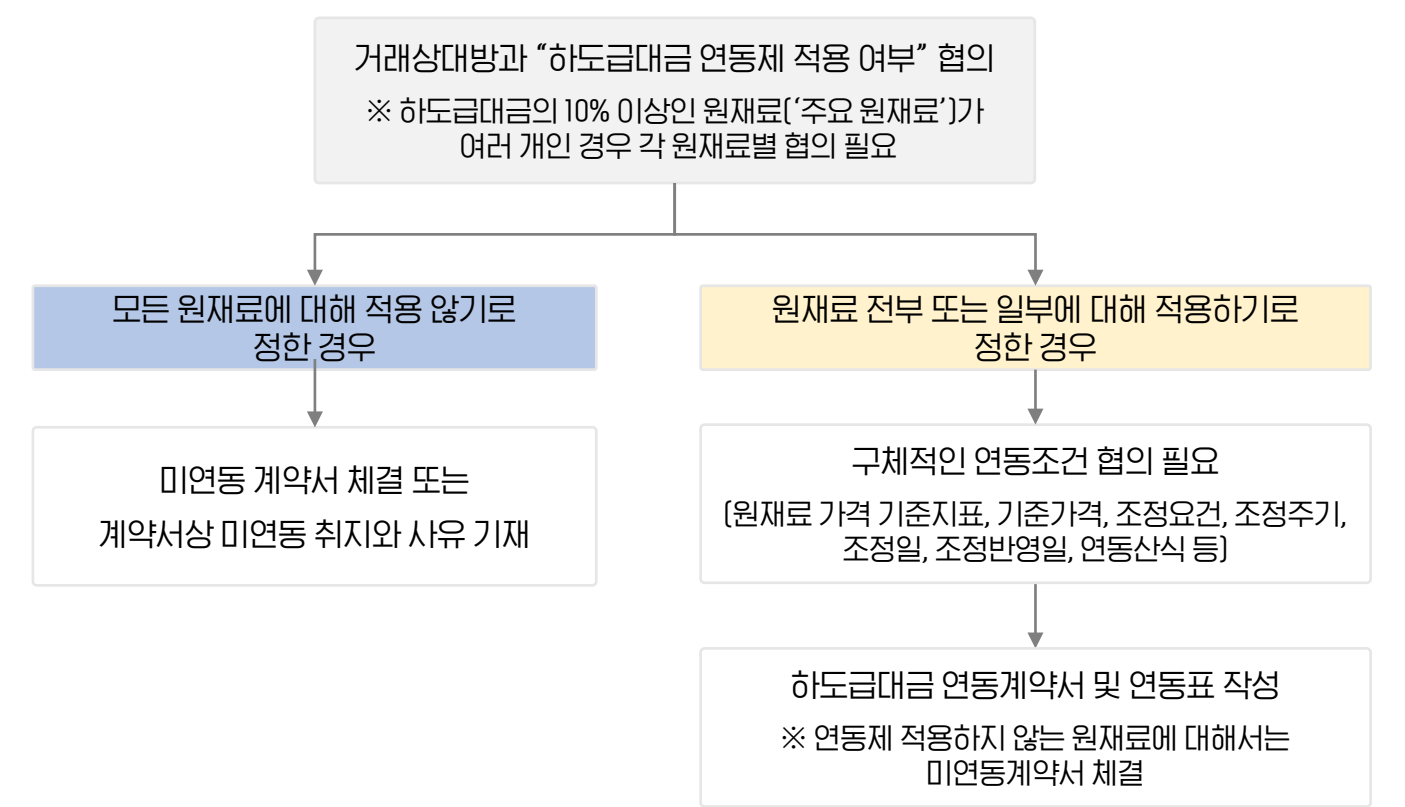
다만, 거래상대방의 원재료 관련 정보는 협력사의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원재료 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에게 기술자료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이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회신할 경우, 당사는 기술자료 제공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을 다시 보내고, 비밀유지계약서 날인이 완료된 후에 원재료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참조 5]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준비

- 2023년 10월 4일 이후 신규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재계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여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예시]	확인 사항
10/4 이전 신규계약	'23. 5. 1. ~ '24. 4. 30.	· 현재 계약기간 중에는 하도급대금 연동 협의의무 없음 · '24. 5. 1. 재계약시 하도급대금 [미]연동 계약서 체결 필요
10/4 이후 신규계약	'23. 11. 1. ~ '24. 5. 31.	· '23. 10. 4. 이후 체결되는 계약으로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계약서 체결 필요
10/4 이전 재계약	'23. 1. 1. ~ '23. 12. 31.	· 매년 1. 1.에 1년 단위로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24. 1. 1. 계약시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계약서 체결 필요
10/4 이후 재계약	'23. 11. 1. ~ '24. 10. 31.	· '23. 10. 4. 이후 재계약을 체결하는 거래로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계약서 체결 필요
자동연장	'22. 1. 1. ~ 현재	· 계약서 자동연장 조항에 따라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 중인 거래, '24. 1. 1. 자동 연장 전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계약서 추가 필요
	'22. 12. 1. ~ 현재	· 계약서 자동연장 조항에 따라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 중인 거래, '23. 12. 1. 자동 연장 전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계약서 추가 필요

[참조 6] 하도급대금 연동 협의 및 계약서 체결



[참조 7] 하도급대금 연동 협의 및 계약서 체결시 유의 사항

☞ 당사는 거래상대방과 하도급대금 연동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위반 시 불이익 발생

- “성실 협의 의무” 판단 기준
 - ① 연동에 관한 협의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
 - ② 연동 관련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③ 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위반 시 불이익
 - ① 개선 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 부과 가능
 - ② 협의결과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미연동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당사는 거래상 지위 남용,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의무를 회피해서는 안됨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경우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따른 당사-거래상대방 간 하도급대금 조정과 당사-발주자 간 대금 조정은 연관성이 없음

하도급대금연동표의 조정요건이 충족되어 거래상대방과의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당사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증액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당사는 연동 약정에 따라 대금 조정 후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지급해야 함
- 연동 약정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와 거래상대방임